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1~3] 다음은 협상의 일부이다. 아래 세 물음에 답하시오.

[협상 이전의 상황]

도요타 회사는 한국에서 신규 사업을 벌이기 위해 키프로스 은행에 도요타 회사의 지분 일부를 넘겨주는 대신 사업 자금을 줄 것을 제의하면서 사업 계획서도 제출하였다. 도요타 회사는 키프로스 은행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받되 키프로스 은행에 최대한 적은 지분을 넘겨주려 하고, 키프로스 은행은 도요타 회사로부터 최대한 많은 지분을 얻어내고자 한다.

도요타 회사 전무 : 저희 회사가 이번에 한국에서 신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금이 100억 원이 필요합니다. 키프로스 은행에서 그 금액을 내어 주시면 그 대가로 회사가 보유한 자사 주식 10%를 넘겨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주식을 주식 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103억 원입니다. ㉠물론 저희가 손해를 보는 것이지만 키프로스 은행과의 첫 거래이니 만큼 키프로스 은행과 좋은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투자로 생각합니다.

키프로스 은행 상무 : 허허. 저희 예상과는 달라서 대단히 실망스럽군요.

도요타 회사 전무 : 예? 어느 정도를 예상하셨습니까?

키프로스 은행 상무 : 저희 측은 도요타 회사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15%의 지분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도요타 회사 전무 : (정색하며) 너무 무리한 요구인데요. 그만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간 서류들을 챙겨서 일어난다.)

키프로스 은행 상무 : 전무님! 잠시만요. 말씀은 끝까지 들어 보셔야죠. 15% 지분을 무작정 강요하려는 것만은 아니고 이제 서로 얘기해 가며 조정해 가야지요. (웃으며) 그렇게 하려고 마련한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도요타 회사 전무 : 그동안 저희가 쌓아 온 사업 실적과 주가 등을 고려하면 저희가 제시한 지분율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현재 103억 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이번 사업이 성공하여 주가가 폭등한다면 키프로스 은행에도 엄청난 이익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140억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요.

키프로스 은행 상무 : (웃으며) 하하하.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사업이라는 게 꼭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몇 해 전 대중 기업 대표도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사업 자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실패했고 그때 사업 자금 대신 받은 주식이 폭락하여 저희 측이 입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저희 경험을 고려해 볼 때, 전무님께서 제시한 지분율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조금 더 높이는 것은 어떨까요?

도요타 회사 전무 : (상기된 표정으로) 저희를 그만 기업과 비교하다니 몹시 기분이 나쁘네요. 저희가 이번 사업에 들인 공이 얼마이며, 성공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는 저희가 보내 드린 사업 계획서를 살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도 키프로스 은행의 입장을 심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12%까지는 양보하겠습니다.

키프로스 은행 상무 : 사업 계획서는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업 계획서에 나타난 ㉣한국 관련 자료의 대부분이 5년 전 것이어서 신뢰하기가 어렵군요. 저희 측이 신

용 평가 회사에 의뢰해 도요타에서 벌일 이번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사업 계획서에서 밝힌 것보다 성공 가능성이 훨씬 낮게 나왔더군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보다 지분율을 높였으면 합니다.

도요타 회사 전무 : (정색을 하며) 아니, 도대체 어느 신용 평가 회사에서 조사한 자료입니까? 누가 뭐래도 도요타는 자동차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 나라에서 큰 사업을 벌여 좋은 실적도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키프로스 은행에 회사 지분을 넘겨주면서까지 사업 자금을 확보하려는 까닭은 키프로스 은행과의 파트너 관계를 통해 자본력이 뒷받침되면 저희 회사가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키프로스 은행 상무 : (고개를 강하게 끄덕이며) 맞습니다. 그 점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14%는 어떻습니까? 도요타 회사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도요타 회사의 경쟁 회사가 이미 한국에 진출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요타 회사 전무 : 그래서 한국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사업 품목을 준비하고 새로운 인재도 영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음에 걸린다면 13%까지 양보하겠습니다. ㉤단,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려면 4년 정도가 필요하니 그 기간 안에는 지분을 주식 시장에 팔아 현금화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키프로스 은행 상무 : 주식 시장에 회사의 주식이 많이 나오면 그 가치가 떨어질 것이 염려되신다는 말씀이군요. 한국은 외국 기업에 배타적인 나라라서 4년 안에 사업적 성과를 내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6년 동안 지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13.8%는 어떻습니까?

도요타 회사 전무 : (팔짱을 끼고 고개를 가로저으며)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키프로스 은행 상무 : 그럼 이전 어떻습니까? 도요타 회사는 한국의 시장 상황이나 문화 등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도요타 회사 전무 : 사업에 필요한 정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키프로스 은행 상무 : 그럼 이번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새로운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도요타 회사 전무 : (팔짱을 풀며) 저희 측에서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만…….

키프로스 은행 상무 : 저희 은행 지사가 한국에 있습니다. 6년 동안 지분을 유지하는 조건과 더불어 만약 저희가 최신 정보를 제공해 드린다면 도요타의 사업 경영은 매우 수월하실 겁니다.

도요타 회사 전무 : 그렇기는 합니다만 역시 큰 부담입니다. 말씀하신 조건들을 모두 유지되 저희 회사가 향후 8년간 키프로스 은행과의 계좌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해서 더 낮출 수 없을까요?

키프로스 은행 상무 : 그럼 사업 기간 동안 한국의 최신 정보를 계속 제공해 주는 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13.5%는 어떻습니까?

도요타 회사 전무 : (미소를 지으며) 최신 정보가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키프로스 은행과의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으니까요. 협상은 이루어진 것으로 하고 서로 도장을 찍도록 하지요.

키프로스 은행 상무 : (활짝 미소를 지으며) 좋습니다.

1. 윗글의 협상 참여자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도요타 회사 전무는 ㉠의 발화를 통해 3억 이상의 이익을 상대방에게 줄 수 있다며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 ② 도요타 회사 전무는 ㉡의 발화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시에 발생할 문제점을 열거하여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 ③ 카프로스 은행 상무는 ㉢의 발화를 통해 자신이 겪었던 경험적 사례를 환기시켜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다.
 - ④ 키프로스 은행 상무는 ㉣의 발화를 통해 한국에 대한 자료가 신뢰성이 다소 부족함을 근거로 하여 자회사가 가져갈 지분율을 높이고자 한다.
 - ⑤ 도요타 회사 전무는 ㉤의 발화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어느 정도 양보하면서 새로운 조건을 부가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해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비언어적 표현과 반언어적 표현은 언어적 의사소통을 보조하는 표현들이다. 이 중 얼굴 표정, 몸동작, 눈 맞춤 등은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하며, 이러한 비언어적 표현은 강조, 반대, 대체로 나뉠 수 있다. 한편 반언어적 표현은 억양, 성량, 어조 등의 변화를 통해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주위를 환기하는 효과가 있다.

- ① 협상 중, 도요타 회사 전무의 상기된 표정은 반언어적 표현 중 억양에 해당하는군
- ② 협상 중, 도요타 회사 전무가 정색을 한 것은 반언어적 표현 중 반대 표현에 해당하겠군.
- ③ 협상 중, 도요타 회사 전무가 미소를 지은 것은 비언어적 표현 중 반대 표현에 해당하는군.
- ④ 협상 중, 키프로스 은행 상무가 팔짱을 낀 것은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이 어느 정도 누그러짐을 드러내는 비언어적 표현이겠군.
- ⑤ 협상 중, 키프로스 은행 상무가 말을 하면서 고개를 끄덕인 것은 비언어적 표현 중에 강조 표현에 해당하는군.

3. 다음 중 협상 과정과 결과에 대한 청중의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다은 : 도요타 회사와 키프로스 은행은 모두 현재 회사 주식의 가치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군.
- ② 기훈 : 도요타 회사와 키프로스 은행이 원만한 협상 결과를 이끌어낸 것은, 지분율 수치 이외에 다른 부수적 조건들을 협상의 내용으로 삼았기 때문이겠군.
- ③ 경록 : 도요타 회사는 키프로스 은행에 지분을 제공하고, 8년 간 키프로스 은행과의 거래를 유지하는 한편, 키프로스 은행은 도요타 회사의 지분을 6년 간 보유하고 도요타 회사에 한국의 최신 정보를 제공하겠군.
- ④ 회재 : 결국 도요타회사가 키프로스 은행에 13.5% 지분율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키프로스 은행에게 더 유리할 수도 있지만, 한국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결정이었겠군.
- ⑤ 명운 : 향후 8년 간 도요타회사에게 한국의 최신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키프로스 은행의 주장은 너무 긴 기간 동안의 약속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력이 없겠군.

[4~5] 다음은 대담의 일부이다. 아래 두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 오늘은 두 분의 교수님을 모시고 과거의 역사적 과오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총리의 신사 참배가 수시로 우리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기도 하고,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청산, 역사 바로 세우기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적이 있기도 합니다. 흔히 법률에는 공소 시효가 있지만 역사의 심판에는 공소 시효가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역사의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 :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과거의 역사적 사실은 현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잘못된 역사를 심판하고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을 처벌할 때, 그 사회, 더 나아가 인류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남 : 역사적 심판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저도 역사의 심판에는 공소 시효가 없고, 끝까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심판을 반드시 사법적 처벌과 연관 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적 심판이 아무리 엄중하더라도 과거를 망각하는 한 불행한 역사는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 : 글썽요,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간단히 말해서, 역사의 심판이란 지난날의 과오에 대해 심판을 내려서 잘못을 바로잡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 아닌가요? 지난날의 과오를 심판한다고 할 때,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방법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에 대해 실제적인 응징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정의가 어떻게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남 : 역사의 심판을 위해서는 사법적인 처벌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사법적 처벌이 오히려 역사적 심판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2차세계대전 중에 다른 민족에게 만행을 저질렀던 이들에 대해 사법적 처리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만행에 동조했는데도 사법적 처리를 면한 사람들은 참회의 과정 없이 과거를 잊어갔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 대한 사법적 처리가 나머지 사람들에게겐 일종의 면죄부가 된 셈이지요. 저는 진정한 역사의 심판은 처벌이 아니라 '드러냄', '드러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사실의 진상을 정확하게, 명명백백히 드러내고 전파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참회하고 반성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자, 진정한 의미의 역사적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4. 두 대담자의 생각이나 태도를 바르게 비교한 것은?

- ① 해결책은 같으나 우선순위가 다르다.
- ② 문제 인식도 다르고 실천 방법도 다르다.
- ③ 인식은 같으나 실천 의지의 정도가 다르다.
- ④ 지향하는 목적은 같지만 그 실현 방법은 다르다.
- ⑤ 현상에 대한 진단은 다르나 해결을 위한 처방은 같다.

5. 남자 대담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통념과 상식에 기대어 상대방의 의견을 비판하고 있다.
- ② 상대방의 주장을 간단히 정리한 후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 ③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함을 들어 상대방의 의견을 반박하고 있다.
- ④ 질문의 형식으로 견해를 밝히면서 상대방의 동조를 유도하고 있다.
- ⑤ 개념의 정의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이 지닌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6-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작문 상황

- 글을 쓰게 된 배경 : 신문에서 '세계 주요 도시 21개 중 밤에 서울이 가장 밝으며, 우리나라 옥외 인공조명의 47%가 국제 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빛 공해가 심각하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접하고, '빛 공해의 개념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로 함.
- 예상 독자 : 일반 시민들
- 글을 쓰는 목적 :
 1. 빛 공해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독자들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자들이 빛 공해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일반 시민들이 해야 할 일들을 언급하여 실생활의 노력으로 빛 공해를 개선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함
- 글의 구성 초안
 - 처음 : '빛 공해'라는 화제 제시
 - 중간 : '빛 공해'의 개념
 - 끝 : 대기업이 '빛 공해' 개선을 위해 해야 할 일 나열, '빛 공해 관련 측정 서비스' 소개

[나] 학생의 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도한 인공조명의 사용이 에너지를 낭비하고 천체 관측을 방해하는 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이 인간과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빛 공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에서는 '빛 공해'를 '가로등, 형광등, 광고 조명이나 장식 조명 등과 같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누출되는 과도한 빛이 인간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다.

빛 공해는 발생 원인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뉜다. 조명 효과가 의도되지 않은 구역까지 침투해 피해를 입히는 현상인 '침입광', 눈이 강렬한 빛에 노출되어 순간적으로 시각이 마비되는 현상인 '눈부심', 한 장소에 과도하게 조명이 사용되어 혼란스러운을 유발하는 현상인 '군집된 빛', 그리고 상향으로 누출된 빛이 굴절되거나 산란되면서 하늘의 전체적인 밝기가 밝아지는 현상인 '산란광'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빛 공해는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줄까? 우선 빛 공해는 인간의 생체 리듬을 파괴한다. 사람이 수면 상태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몸에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야 하는데, 이 호르몬은 어두운 상태에서 생성된다. 그래서 심야 수면 시간에 빛 공해가 발생하면, 사람은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어 생체 리듬이 깨지게 된다. 또한 이런 상황에 장기간 노출되면 뇌의 기능이 저하되고, 암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세계 보건 기구(WHO)에서는 빛 공해를 발암 물질로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빛 공해는 작물의 수확률을 감소시킨다. 이는 야간 조명이 광합성과 성장 등 식물의 생리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식물의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빛 공해는 양서류와 같은 동물들의 생식률을 저하시킨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동·식물의 개체 수 감소로 연결되어 생태계 파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최근 빛 공해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빛 공해에 대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좋은 빛 정보 센터(goodlight.or.kr)'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곳에서는 일반 디지털 카메라로 광고 조명이나 장식 조명을 찍어 사진을 올리

면 온라인상으로 빛 방사량을 측정해 주는 '빛 공해 관련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카메라 설정 방법 및 사진 촬영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6. [가]의 작문 상황에 비추어 [나]를 판단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를 통해 작문은 배경지식을 배제해야 하는 행위임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가)에서 언급한 구체적인 수치를 (나)에서도 언급하여 독자에게 신뢰감을 주고 있다.
 - ③ '빛 공해'의 개념을 제시하기로 한 (가)의 작문 상황을 변경하여 (나)를 작성하고 있다.
 - ④ '빛 공해'의 유형과 문제점을 (나)에 새롭게 첨가하여 글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 ⑤ (가)의 '대기업이 해야 할 일'을 (나)에서도 언급함으로써 빛 공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다

겨울 저물녘 광화문 네거리
맨몸으로 돌아가 있는 가로수들이
일제히 불을 켜다 나뭇가지에
수만 개 꼬마전구들이 둘러붙어 있다
불현듯 불꽃 나무! 하며 손뼉을 칠 뻔했다

어둠도 이젠 평균 같은 것일까
밤을 끄고 휘황하게 낮을 켜 놓은 권력들
내륙 한가운데에 서 있는
해군 장군의 동상도 잠들지 못하고
문닫은 세종문화회관도 두 눈 뜨고 있다
엽록소를 버리고 쉬는 겨울 나무들
한밤중에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다

광화문은 광화문(光化門)
뿌리로 내려가 있던 겨울 나무들이
저녁마다 황급히 올라오고
겨울이 교란당하고 있는 것이다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
광화문 겨울 나무들
다가오는 봄이 심상치 않다

- 이문제, 「광화문, 겨울, 불꽃, 나무」 -

- ① '해가 졌는데 어두워지지 않는다'는 빛 공해가 해결된 상황 이겠군.
- ② '어둠'에 대해 화자가 비판적 태도를 지닌 것은 겨울나무들이 빛 공해로 인해 교란당하고 있기 때문이겠군.
- ③ '겨울이 교란당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표현은 식물의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겠어.
- ④ '한밤중의 이상한 광합성'은 식물의 생리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겠어.
- ⑤ '잠들지 못하는'이라는 표현을 인간이 겪는 문제로 확장한다면 빛 공해가 인간의 생체 리듬을 파괴하는 문제를 가져다 줄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이겠군.

8. 작문 상황을 바꾸어 새로운 글을 쓰는 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 신문기사를 읽고, 작성할 글의 내용을 <조건>에 따라 구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신문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

요즘에는 밤이 되어도 대낮처럼 환하다. 화려한 인공조명이 곳곳에서 불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필요 이상으로 밝은 인공조명은 사람의 건강과 생활에 큰 피해를 주는데, 이를 ‘빛 공해[Light Pollution]’라고 한다. 지나친 불빛은 눈부심 현상을 일으켜 사물을 분간하기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불쾌감을 준다. 밤새 켜두는 조명이 지나치게 밝고 환해서 수면 장애를 가져오고 생체 변화를 일으켜 피로, 불안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조 건>

- 예상 독자를 명시적으로 밝힐 것.
-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할 것.
-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 새로운 주제를 설정할 것.

- ① 어둠이 지나면 밝음이 온다는 점을 활용하면, 실직자에게 재취업을 할 수 있다고 격려하는 글을 쓸 수 있겠어.
- ② 지나치게 밝은 빛이 생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면, 시민들에게 빛 공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글을 쓸 수 있겠어.
- ③ 빛이 어둠을 밤새 밝혀준다는 점을 활용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소외된 이웃들을 지속적으로 돕자고 권유하는 글을 쓸 수 있겠어.
- ④ 밤새 켜두는 불빛이 범죄를 예방한다는 점을 활용하면, 어둡고 후미진 골목에 가로등을 많이 설치해야 함을 주장하는 글을 쓸 수 있겠어.
- ⑤ 필요 이상으로 밝은 조명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점을 활용하면, 과도한 다이어트가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음을 경계하는 글을 쓸 수 있겠어.

9. <보기>를 고쳐 쓰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지님’과 ‘누림’

가난하게 살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어서 평생 소원했던 대로 방이 매우 많은 집을 짓는다. 집이 완성된 후 그는 모든 방을 누리기 위해 한 방에서 한 시간씩 잠을 자고 다른 방으로 옮긴다. ㉠그 덕분에 그는 하룻밤도 편하게 잠을 자지 못한다.

과연 이 사람은 자기가 지닌 것을 제대로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가정을 꾸린 사람들이라면 모두 크진 작은 집에 집을 소유하려는 욕심을 갖고 있다. 집은 지니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고, 정작 중요한 것은 ‘방이 많은 집’이 아니라 ‘편안한 잠’이다. ㉢많은 것을 지니기만 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요즘은 고급 아파트가 기호품처럼 광고에 등장하고 있고 좋은 집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집의 가치는 건물의 규모나 가격이 아니라 거기에서 일궈 낼 수 있는 삶의 질에 의해 규정된다. ㉤아무리 지님이 중시되는 사회이므로, 어떻게 누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① 문맥에 맞지 않으므로 ㉠을 ‘그 바람에’로 수정한다.
- ② 내용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을 삭제한다.
- ③ 문장의 연결을 고려하여 ㉢의 앞에 ‘그러면’을 첨가한다.
- ④ 문장 성분이 생략되었으므로 ㉣의 ‘좋은 집을 ~ 노력하고 있다’ 앞에 ‘많은 사람들이’를 첨가한다.
- ⑤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에서 ‘사회이므로’를 ‘사회라 하더라도’로 수정한다.

10. 다음은 ‘수돗물 정책’과 관련한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자료 1>

OO시 시민 수돗물 신뢰도 (%)

<자료 2>

OO시 시민 음용 식수 (%)

정수기 물	45.4
수돗물	39.2
생수	10.1
약수·지하수	5.1
기타	0.2

<자료 3>

수돗물이 식수로 부적합한 이유 (%)

상수원이 깨끗하지 못할 것 같음	32.3
수도관 물탱크 관리 불신	23.8
막연히 불안함	12.6
냄새가 나서	12.1
녹물이 나올	6.2
육내 급수관에 문제가 있음	5.7

*OO시 시민 중 수돗물이 식수로 부적합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함

- ① <자료1>을 활용하여,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 ② <자료1>과 <자료2>를 활용하여, 상당수 시민들이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여기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수돗물을 그대로 먹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 ③ <자료2>와 같은 반응이 나오는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자료3>의 내용을 제시한다.
- ④ <자료2>를 활용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약수와 지하수를 더 많이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 ⑤ <자료3>을 활용하여, 수돗물을 식수로 부적합하다고 여기는 데에는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 의견을 제시한다.

11.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용언의 활용에서 어간, 어미가 결합할 시에도 모습이 바뀌지 않거나, 바뀌어도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규칙 활용이라고 한다. 여기서 일반적인 음운 규칙이란 모음 조화, 축약, ㄹ탈락, ㅡ탈락 등을 말한다.

한편, 용언의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불규칙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불규칙 활용'이라고 한다. 이런 불규칙 활용으로는 어간만 바뀌는 불규칙, 어미만 바뀌는 불규칙,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불규칙 등이 있다.

(가) 개울이 불어서 건널 수가 없어.
 (나) 지현아, 사람들을 빨리 불러 불러 오너라.
 (다) 소미야, 유대종을 땅에 묻어 봐라.
 (라) 명운아, 공부를 열심히 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라.
 (마) 예전 하늘은 푸르려 보였어. 근데 요즘에는 미세 먼지로 인해 하늘이 온통 누레.

- ① (가)의 '불어서'는 (나)의 '불러'와 마찬가지로 어간만 바뀌는 불규칙 활용에 해당하진군.
- ② (라)의 '하어'는 어미만 바뀌는 불규칙 활용이고, (마)의 '보였어'는 규칙 활용에 해당하진군.
- ③ (마)의 '푸르려'는 어미만 바뀌는 불규칙 용언이고, '누레'는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불규칙 활용에 해당하진군.
- ④ (나)의 '불러'는 (다)의 '묻어'와 마찬가지로 어간만 바뀌는 불규칙 활용에 해당하진군.
- ⑤ (다)의 '봐라', (라)의 '얻어라'는 (나)의 '오너라'와는 달리 규칙 활용에 해당하진군.

12.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였을 때 발음과 음운 변동의 현상이 모두 적절한 것을 고르면?

<보 기>

음운의 변동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축약이 그것이다. 단, 연음은 음운의 변동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 ① '닭 앞에는 [달가페]로 발음되며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② '나팔꽃아'는 [나팔꼬차]로 발음되고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③ '달히다'는 [다치다]로 발음되며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④ '늑막염'은 [늑막점]으로 발음되고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 ⑤ '술하다'는 [수타다]로 발음되며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13. 다음은 된소리가 되는 현상에 관한 질문과 표준 발음법 규정, 표기 규정 등을 연결한 것이다. 질문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규정이 아닌 것은?[3점]

	질문	관련 규정
①	'여덟과'의 '과'는 예사소리로 발음하면서, '넋개'의 '개'는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은 어떤 규정과 관련될까요?	어간 받침 '래, 띠'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②	'갈구(渴求)'의 '구'은 예사소리로 발음하면서, '갈등(葛藤)'의 '등'은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은 어떤 규정과 관련될까요?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③	'국수'는 왜 [국쑤]로 발음되는데 '국수'로 적나요?	ㄱ, ㅂ 받침 뒤에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숫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④	'된밤'의 '밤'은 예사소리로 발음하면서, '봄길'의 '길'은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은 어떤 규정과 관련될까요?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휴지가 성립되는)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⑤	'안기다'는 왜 [안끼다]로 발음하지 않나요?	어간 받침 'ㄴ(ㄴ), ㄹ(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14. 다음 밑줄 친 부분의 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 일에 자꾸 끼여들지 말거라.
 - ② 소회는 보따리를 덥석 받아 들었다.
 - ③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독서 습관을 강조하였다.
 - ④ 잘 삶은 국수를 찬물에 행군 후 체에 발쳐 놓았다
 - ⑤ 머리말을 잘 읽어보면 책이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단다.

15. <보기>의 단어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가) : 냇가에 가서 친구들과 놀았다.
 (나) : 다디단 그 사탕을 한 입만 먹어 봤으면 좋겠어. 병현아.
 (다) : 나우야, 또 싸움질하니? 집안이 쑥대밭이로구나.
 (라) : 성적이 자꾸 오르내리는 것을 보니 공부를 더 해서 너의 노력이 점수에 스며들도록 해야겠구나.
 (마) : 너희들은 항상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더라.

- ① (나)의 '다디단'은 (가)의 '냇가'와는 달리 합성어가 될 때 음운 탈락이 일어난 것이겠군.
- ② (나)의 '병현아', (다)의 '나우야'는 한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가)의 '친구들', (마)의 '너희들'은 두 단어가겠군.
- ③ (다)의 '싸움질', '쑥대밭'은 모두 합성어로 분류되며 이 중 '쑥대밭'은 단어가 합성되면서 본래와 의미와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군.
- ④ (라)의 '오르내리'는 '스며들다'와 마찬가지로 비통사적 합성어로 분류되겠군.
- ⑤ (마)의 단어의 개수는 총 8개이겠군.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선 후기 역사학에서 정통론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홍여하(洪汝河)의 『동국통감제강』에서였다. 이는 17세기 중엽, 명·청교체라는 동아시아 '천하' 질서의 근본적 ㉠동요에 따라 중국 대륙에서 중화(中華)가 공석이 되었다는 의식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의식은 주자학을 수용하여 도학을 밝히었던, 명나라의 부활을 고대하거나 새로운 한족의 ㉡수립을 도우려 했던 조선이 이제 소중화(小中華)로서 중화를 대위(代位)한다는 각성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이러한 소중화 의식은 '중화 회복 의식' 중 급진파였던 효종 대의 북벌론을 사상적·정치적으로 지지하면서 점차 조선 사회에서 보편화되었다. 다수의 노론계통 사상가들도 화이(華夷)의 구분은 지리 경계나 종족에 있지 않다고 보면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중화'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처럼 주자에 의해 확립되고 조선 왕조에서도 그동안 굳게 신봉되었던 화이관, 즉 중국 강역에서만 그리고 중국족에

의해서만 '화(華)'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전통적인 화이관은 크게 ㉢변질되었다. 나아가 중국 밖에서도, 비중국족에 의해서도 화가 성립될 수 있다는 인식은 문화 중심 화이론의 성립으로 이어졌다. 역사 인식에서 보면 '존조선(尊朝鮮)' 의식의 성립, 강목체(綱目體) 서술의 강화, 그리고 정통론(正統論)의 조선사 적용 등이 그 반영이었다.

이익(李瀾)은 바로 그와 같은 역사 인식을 계승하면서 더욱 논리적으로 체계화하고 질적으로 심화시켰다. 그는 우선 "지금의 중국은 대지 중의 한 조각 땅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여, 전통적 화이관의 대를보였던 중국 중심의 '천하' 사상을 분쇄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는 중국 중심의 '천하'에 소속된 존재가 아니라, 각기 하나의 독자적 유기체를 이루고 있다고 인식하게 된다. 다시 말해 전통적인 중국 중심 천하관, 즉 유일한 '천하'로서의 '중국 천하'는 병렬된 개별 국가로 분절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조선은 하나의 독립된 '역사적 세계'였다. 여기에서 이익의 '삼한 정통론'이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정통론의 적용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이익의 정통론이 북벌론자들이나 노론 ㉣계열의 그것과 크게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나 후자는 중화의 현실적인 대위라는 '존아적 자기 인식'에서 발로된 것이었을 뿐 중국 중심의 '천하' 의식은 여전한 데 반해, 전자는 하나의 독립된 역사적 세계로서의 조선 인식에 기초한 것이었다. 즉 이익은 중국 중심 '천하'의 부정을 전제로 조선의 독자성에 대한 인식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후자는 예악(禮樂)을 기준으로 하되 조선만을 소화 내지 중화로 보았던 데 반해, 이익은 예악이 요(遼)·금(金)·원(元) 등 만리장성 바깥에서도 성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해했다. 다시 말해 이익은 중국족의 ㉤습속까지 예악에 포함시켰던 노론 계열의 소화 의식과는 달리, 예악을 유교적인 것으로 순화시킴으로써 소화 의식을 내용 면에서 본질적으로 수정했던 것이다.

한편 이익은 결과를 가지고 역사의 성패를 논하면 착오가 많다고 판단했으며, 원인이나 객관적 여건을 중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에 따르면, 천하의 제반 역사 운동이나 역사 사실의 전개에서는 시세(時勢)가 기본적 요인이고, 인간 행위는 부차적이며, 도덕적 시비는 천하사의 전개와 거의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때 시세는 어떠한 형태의 범칙성도 거부하는 우연적인 것이며, 동시에 특수한 것이었다. 따라서 실제 역사에 개입된 인간 행위의 성패는 시세에 적합한가 아닌가에 따라 결정된다. 요컨대 그에게 시세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객관적인 여건·정세로서, 무법칙적으로 운동하면서 인간의 의지와 희망에 관계없이 역사를 기본적으로 규정하는 원동력이었던 것이다.

그는 역사 운동과 역사 사실을 도덕적 선악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분리하고, 인간 행위에 대해서만 도덕적 선악의 시비 문제를 가리고자 했다. 즉 인간 행위에 대해서는 선은 선으로 여기고 악은 악으로 여기되, 그 선악이 역사 운동과 역사 사실로부터는 완전히 차단·분리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처럼 실제적 사실을 중시했기 때문에, '화'의 기준도 내면적 규범으로서의 도덕과 인의에서가 아니라 외적·객관적 사회 규범으로서의 예(禮)에서 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1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중국 지역에 위치하지 않더라도 '화'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한 노론 계통 사상가가 존재한다.
 - ② '문화 중심 화이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화이의 구분이 지리 경계나 종족에 있지 않다고 볼 것이다.
 - ③ 이익과 북벌론자들은 모두 예악의 성립과 발전이 만리장성 안에서 바깥으로 먼저나갔다고 보았다.
 - ④ 이익은 중국족의 습속을 예악에서 배제함으로써 조선의 독자성에 대한 인식으로 나아갔다.
 - ⑤ 이익은 역사 운동 및 역사 사실을 도덕적 선악과 구별하였다.

17. 위 글에서 제시한 정통론의 유형 분류 기준에 따를 때, '천하'에 대한 관점이 '이익'의 세계관과 다른 것은?

- ① 내 생각으로는 이른바 중국이란 것이 어찌하여 중(中)이 되는지를 모르겠고, 이른바 동국이란 것이 어찌하여 동(東)이 되는지를 모르겠다. 대저 이미 동서남북의 가운데라 하면 어느 곳이나 중국 아닌 곳이 없을 것이니, 동국이란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 ②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어찌 내외의 구분이 있겠는가. 이러한 까닭에 각기 자기 사람들을 친숙하게 여기고 자기 임금을 높이며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자기 풍속에 편안해 하는 것이니, 화와 이는 한 가지인 것이다.
- ③ 요국·금국에 예악(禮樂)이 없는 것도 아니요, 형정(刑政)이 쥔(關)한 것도 아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억조(億兆)의 백성과 넓은 영토를 하루 아침도 통치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내가 들은 바로는 음악이 서방으로부터 왔으므로 중국이 그것을 취하여 쓴 것이 많았고 정령(政令)을 진실하게 행하여 사(私)가 없는 것은 중국도 미치지 못할 것이 있다.
- ④ 어찌 유독 중화에만 군주가 있을 것이며, 어찌 이적(夷狄)에는 군주가 없겠는가. 천지는 넓고 넓어 한 사람이 홀로 주인 노릇할 수 없으며, 우주는 광대하니 한 사람이 오로지 할 바가 아닌 것이다. 천하는 곧 천하인의 천하요,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니다.
- ⑤ 비록 이적의 사람들이라도 이적의 행동거지를 버리고, 중국의 도를 사모하고, 중국의 옷을 입고, 중국말을 하고, 중국의 행위를 할 수 있다면 이 역시 중국일 뿐이다. 지금 우리 조선만이 주자학을 중주로 삼고 있으니, 주례(周禮)가 노(魯)에 있는 격이다.

18. '이익'의 관점에서 <보기>를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지금까지는 역사 서술들은 이미 결정된 성패를 뒤쫓아가면서 '성(成)'은 곱게 꾸미고 '패(敗)'는 더럽게 만들며, '선(善)'에 대해서는 허물을 숨기고 '악(惡)'에 대해서는 장점을 버려서, 그 성패가 마치 '우지(愚智)'에 의한 성패의 평가라 함과 '선악응보(善惡應報)'라는 인과 법칙의 당연한 귀결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옳지 않다. 사실과 도덕은 기실 분화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 ① 선과 악의 장점을 모두 버리자는 것은 시세의 법칙성에 어긋난다.
- ② 사실과 도덕을 분화시키는 것은 존약적 자기인식을 위협하므로 옳바르지 않다.
- ③ 이미 결정된 성패를 뒤쫓아 가는 것은 객관적 여건을 중시하는 바람직한 행동이다.

- ④ 역사 서술의 객관성을 강조하는 것은 도덕과 같은 내면적 규범을 지키게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
- ⑤ 사실과 도덕이 분화된다면 외적·객관적 사회 규범으로서 화의 기준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므로 바람직하다.

19.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상황을 일부러 어렵게 만들
- ② ㉡ : 제도나 계획을 이룩하여 세움
- ③ ㉢ : 성질이 달라지거나 물질의 질이 변함.
- ④ ㉣ : 서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점이 있어서 한 갈래로 이어지는 계통이나 조직.
- ⑤ ㉤ : 습관이 된 풍속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까마귀는 모두 검다.”(H1)라는 가설을 생각해 보자. 이 가설을 입증해주는 관찰사례는 어떤 것일까? 이에 대답하기는 아주 쉬워 보인다. 만약 a가 까마귀이고 색이 검다면 그 가설을 입증해주고, b가 까마귀인데 검지 않다면 그 가설을 반증해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까마귀가 아니면서 검은 대상 c나 까마귀도 아니고 검지도 않은 대상 d는 모두 ‘무관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조건들을 입증에 만족시켜야 할 ‘니코드 조건’이라고 부른다.

이번에는 “검지 않은 것은 모두 까마귀가 아니다.”(H2)라는 가설을 생각해 보자. 앞에 나온 니코드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면, 사례 d처럼 검지 않고 까마귀가 아닌 것은 이 가설을 입증한다고 보아야 하는 반면, 사례 b처럼 검지 않고 까마귀인 것은 이 가설을 반증해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검은 대상은 그것이 까마귀이든 아니든 (즉 사례 a이든 사례 c이든) 상관없이 모두 무관한 사례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H1과 H2는 논리적으로 서로 ‘동치’인 가설들이다. 즉 H1과 H2는 언제든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동등한 가설들이다. 하지만 니코드 조건에 따르면, 사례 a와 d는 각각 H1과 H2 가운데 하나만을 입증하고 다른 하나에 대해서는 중립적이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이런 문제점을 피하려면, “어떤 사례가 한 가설을 입증하면, 그 사례는 그 가설과 논리적으로 동치인 모든 가설들 역시 입증한다.”는 조건, 즉 ‘동치 조건’을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동치 조건’을 받아들인다고 가정하고, 니코드 조건과 방금 규정한 동치 조건을 결합하여 보자. H1과 H2는 동치이므로, d는 H1도 입증한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검은색도 아니고 까마귀도 아닌 대상, 예컨대 빨간 장미나 푸른 나뭇잎 등도 “까마귀는 모두 검다.”라는 가설을 입증한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이상하다.

우리는 이런 이상한 결론을 더 확장할 수도 있다. H1은 논리적으로 “까마귀이거나 까마귀가 아닌 대상은 모두 까마귀가 아니거나 검은색이다.”(H3)와도 동치이다. 그런데 어떤 대상이든 “까마귀이거나 까마귀가 아니다.”에 해당될 것이므로, 결국 ‘까마귀가 아니거나 검은색’이든 어떤 무엇이든 H1을 입증한다는 얘기가 된다. 즉 오늘 아침에 본 노란색 자동차나 검은 고양이도 “까마귀는 모두 검다.”라는 가설을 입증한다고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까마귀의 역설’이라고도 불리는 입증의 ㉦역설이다.

20. 밑글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니코드 조건과 동치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고 아울러 H1과 H2가 동치라는 점을 인정할 때, b는 H2의 반증 사례이다.
- ② 니코드 조건과 동치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고 아울러 H1과 H2가 동치라는 점을 인정할 때, d는 H2의 입증 사례이다.
- ③ 니코드 조건과 동치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고 아울러 H1과 H2, H3이 모두 동치라는 점을 인정할 때, c는 H1, H3의 입증 사례이다.
- ④ 니코드 조건과 동치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고 아울러 H1, H2가 동치라는 점도 인정하지만 이들이 H3과 동치가 아니라고 가정할 때, a는 H2의 입증 사례이다.
- ⑤ 니코드 조건과 동치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고 아울러 H1과 H2는 동치라는 점도 인정하지만 이들이 H3과 동치가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d는 H1의 무관한 사례이다.

21. 밑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까마귀의 역설은 니코드 조건과 동치 조건을 동시에 인정할 때 해결된다.
- ② 입증은 가설의 내용뿐만 아니라 표현 방식에도 의존해야 하는 것은 옳지 않을 수 있다.
- ③ 특정 가설에 대해 반증 또는 입증 사례가 아닌 사례들은 니코드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한 사례가 어떤 가설을 입증한다고 해서 그 가설과 동치인 다른 가설도 입증한다고 볼 수 없음을 밝히더라도 '까마귀의 역설'을 해결할 수 없다.
- ⑤ H1과 H2는 각각 까마귀와 검치 않은 것에 관한 주장이기 때문에 별개로 입증되어야 할 독립적인 가설임을 밝히더라도 '까마귀의 역설'을 해결할 수 없다.

22. 밑글의 내용으로 볼 때, ㉠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니코드 조건과 동치 조건은 언제나 양립 가능하기 때문에
- ② 니코드 조건과 동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반증 사례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 ③ 니코드 조건과 동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무관한 사례가 입증 사례로 변하기 때문에
- ④ 니코드 조건과 동치 조건을 동시에 받아들이면 입증과 무관해 보이는 관찰 사례들 역시 입증 사례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 ⑤ 니코드 조건과 동치 조건을 동시에 받아들이면 입증이 가설의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에도 의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 몸은 '자연적 치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자연적 치유'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자연적 치유'라는 것은 우리 몸에 바이러스(항원)가 침투하더라도 외부의 도움 없이 이겨낼 수 있는 면역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면역 시스템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 찾아 바이러스를 제거한다. 그런데 이러한 면역 시스템에 관여하는 세포 중에서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가 있다. 그것은 바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찾아내 제거하는 '킬러 T세포'(killer T cells)이다. 킬러 T세포는 우리 몸을 ㉡ 지키는 파수꾼인 셈이다.

킬러 T세포는 혈액이나 림프액을 타고 몸속 곳곳을 순찰하는 일을 담당하는 림프세포의 일종이다. 림프세포에는 킬러 T세포 말고도 헬퍼 T세포와 B세포가 더 있다. 헬퍼 T세포는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B세포를 활성화시켜 항체를 생산하게 하고 이로 하여금 바이러스를 파괴하게 한다. 반면 킬러 T세포는 감염된 세포를 직접 공격한다. 한편 킬러 T세포는 도로에서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처럼 세포 하나하나를 점검하여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찾아낸다. 이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가 킬러 T세포에게 발각이 되면 죽게 된다. 그렇다면 킬러 T세포는 어떤 방법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파괴할까?

면역 시스템에서 먼저 활동을 시작하는 것은 세포 표면에 있는 'MHC(주요 조직 적합성 유전자 복합체)'이다. MHC는 꽃게 집게발 모양의 단백질 분자로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 조각을 세포 표면으로 끌고 나오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본래 세포 속에는 자기 단백질이 대부분이지만, 일단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원래 없던 바이러스 단백질이 세포 안에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기 단백질과 바이러스 단백질은 단백질 분해효소에 의해 펩티드* 조각으로 분해되어 세포 속을 ㉢ 떠돌아다니다가 MHC와 결합해 세포 표면으로 배달되는 것이다.

이때에는 킬러 T세포가 활동한다. 킬러 T세포는 자기 표면에 있는 'TCR(T세포 수용체)'을 통해 세포의 밖으로 나온 MHC와 펩티드 조각이 결합해 이루어진 구조를 인식함으로써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MHC와 결합된 펩티드가 자기 단백질의 것이라면 T세포는 자신이 만난 세포를 정상 세포로 인식하고 그냥 ㉣ 지나친다. 하지만 MHC와 결합된 펩티드가 바이러스 단백질의 것이라면 T세포는 활성화되면서 세포를 공격하는 단백질을 감염된 세포 속으로 보낸다. 이렇게 T세포의 공격을 받은 세포는 곧 죽게 되며 그 안의 바이러스 역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지금도 우리 몸의 이곳저곳에서는 비정상적인 세포분열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몸에 ㉤ 있는 킬러 T세포가 병든 세포를 찾아내 파괴하는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듯 면역 시스템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다. 또한 우리 몸이 유기적으로 잘 짜인 구조임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 펩티드 : 단백질 분자와 구조적으로 비슷하면서 보다 작은 유기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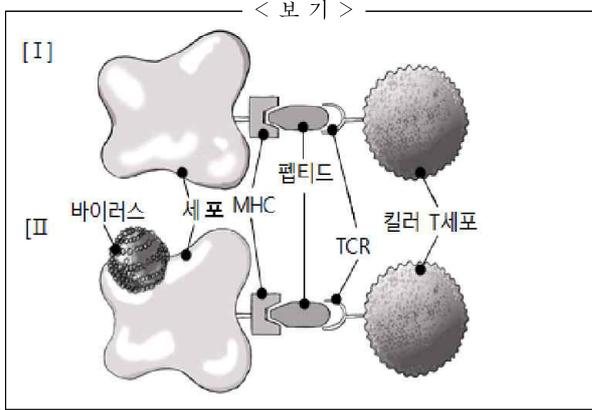
2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킬러 T세포 중 림프 세포가 아닌 것은 없다.
- ② 헬퍼 T세포는 직접적으로 바이러스를 파괴하지는 않는다.
- ③ 킬러 T세포는 면역 시스템에 관여하여 자연적 치유를 가능하게 한다.
- ④ 외부의 도움으로 바이러스를 이겨낸다면 자연적 치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 ⑤ 병든 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킬러 T세포로 인해 B세포가 활성화되어 항원을 생성한다.

24. 위 글의 설명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존 이론을 보완한 새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 ② 대상이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 ③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유사한 기능을 하는 두 대상을 서로 비교하고 있다.
- ⑤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통해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25. 위 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를 접한 후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I]의 '킬러 T세포'는 세포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겠군.
- ② [I]의 'MHC'가 이동시킨 '펩티드'는 세포 안의 바이러스 단백질이 분해된 것이겠군.
- ③ [II]의 세포는 '킬러 T세포'의 활동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도 계속 생존하여 활동하겠군.
- ④ [II]의 '펩티드'는 세포 속 바이러스가 그대로 세포 표면으로 이동한 것이겠군.
- ⑤ [I], [II]의 'TCR'은 'MHC'와 '펩티드'의 결합 구조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겠군.

26. 문맥상 ㉠-㉣와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요청하여
- ② ㉡ : 유지하는
- ③ ㉢ : 배회하다
- ④ ㉣ : 간과한다
- ⑤ ㉤ : 존재하는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산수화 이해의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와유(臥遊)'가 있다. 와유의 형성, 분화, 발전 과정이 바로 산수화의 역사를 이룬다. 와유는 『송서』 「은일전」에서 종병(宗炳)을 두고 “누워서 노닌다.”라고 기록한 데에서 유래한다. 이것은 절대적인 정신의 자유를 의미하는 『장자』의 ‘소유유(逍遙遊)’와 관련 있는 것이다. 중

병은 위진남북조 시대의 산수화가이자 이론가이면서 불교 수행자이기도 하다. 그리고 유학과 불학 사이에서 일어났던 육체와 정신의 관계에 대한 논쟁, 즉 형신(形神) 논쟁의 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다. 그는 혜원의 여산불교(廬山佛教) 영향을 받아 산수를 통해 부처의 구원을 얻고자 하였다. 그는 젊어서 유명한 산을 마음껏 유람하고 산에 투영된 영혼을 ㉠음미하면서 자신의 정신을 해방하였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이러한 유람을 할 수 없자, 과거에 그가 노닐었던 산을 그려 감상하면서, 인연을 만든 ‘정(情)’과 ‘식(識)’을 줄여 나가 점차적으로 정신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였다.

후대에 이 ‘와유’의 개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산수화와 관련된 다. 하나는 감상적 ㉡측면을 강조하는 직업 화가인 화원의 그림이고, 다른 하나는 주체적인 창작 과정을 즐기는 문인들의 그림이다. 이러한 분화는 북송 이후 사대부들의 의식 세계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들의 의식 세계에는 사회적 자아와 개인적 자아가 ㉢공존하고 있었다. 이 두 자아는 내면적으로 서로 모순 되면서도 조화를 이루려고 한다. 사회적 자아란 “나라에 도가 있으면 함께 세상을 구원한다.”라는 겸재천하(兼濟天下)를 추구하며, 개인적 자아는 “나라에 도가 없어 홀로 그 몸을 닦는다.”라는 독선기신(獨善其身)을 지향한다. 사대부들은 시대 상황에 따라 겸재천하를 자신의 삶의 원리로 현실화하기도 하고, 독선기신을 삶의 가치로 수용하기도 하였다. 북송 시대에 화원화와 문인화가 등장한 것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깊은 관련을 갖는다.

북송 시대 대표적 화원인 곽희(郭熙)의 저서 『임천고치』에서는 화원화에 대한 이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곽희가 살았던 시대는 태평성세였다. 사대부는 충과 효를 사회적으로 실천해야만했다. 그 때문에 자연에서 노닐며 살고자 하는 개인적 욕망을 실현할 수 없었다. 사대부들은 화원들을 구해 자신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산수를 그리게 하였다. 화원은 사대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였다. 작품 구상을 위해 시에 의존하고, 사대부들이 작품을 통해 와유할 수 있게끔 대상의 사실적 묘사와 삼원법(三遠法)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특히 삼원법은 상이한 시점들을 서로 교차시켜 감상자가 산수화의 ‘산수’에 들어가 자연에서 느꼈던 생생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화법이다.

또한 삼원의 ‘원(遠)’은 바로 무한의 세계로 확장하는 방편이기도 하다. 감상자는 이를 통해 산수의 한 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무한한 곳으로 확장하여 절대적인 정신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러나 ‘원’을 통해 자유의 경지를 실현하면서 개인적 자아의 추구에 치우쳐 또다시 사회적 자아와 균형을 잃을 수 있다. 그래서 ㉠ 사대부는 두 자아의 균형을 위해 산수에 사회적 가치가 투영되도록 하였다.

문인화 이론은 북송의 문인이었던 소식(蘇軾)의 글에 잘 나타나 있다. 소식에게 문인화는 창작 행위 그 자체를 즐기는 ‘나를 위한 그림’이다. 소식은 ‘안’과 ‘밖’의 일체, 마음과 손의 통일을 주장하면서 마음의 주체적 활동성을 강조하였다. 자연과 일체된 마음의 움직임이 손에 쉽 없이 반응하여 필묵으로 표현되며, 이것이 작품에 반영되어 ㉤일관된 기세를 가지면서 창조적으로 전개된다는 것이다. 즉 사물의 외형보다 필묵의 묘미를 더 강조하는 것이다. 청나라 초기 석도(石濤)는 문인화의 창작 과정을 일획론(一畫論)으로 기술하고 있다. 일획론이란 내 마음에 간직되어 있는 우주 창조의 원리이면서 창작 행위의 원리이기도 하고 구체적인 화법의 원리이기도 하다. 이 관계들에 대하여 석도는 ㉠“획은 먹을 받고, 먹은 붓을 받고, 붓은 팔을 받고, 팔은 마음을 받아들이어서, 하늘이 이치를 주재하고 땅이 그 이치를 완성하는 것과 같으니, 이것이 바로 ‘받는다(受)’고 한 이유이다.”라고 말하였다. 석도는 하나의 획이 마음에서 일어나 만 가지의 획으로 분화되고 그로부터 자연 형상이 묘사되는 일련의 과정을 강조한 것이다.

2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화원화가들은 창작 행위 자체보다는 사실적인 묘사와 삼원법 등의 기법을 추구하였다.
- ② 광희의 와유는 상이한 시점으로 산수를 재현하여 감상자에게 생생함을 부여한다.
- ③ 북송 시대 산수화는 겸재천하와 독선기신의 지향에 따라 서로 다른 두 경향으로 나뉘었다.
- ④ 문인화가들은 '안'과 '밖'의 일체, 마음과 손의 통일이 이루어져서 나타나는 다양한 기제와 그에 따른 변화를 중시하였다.
- ⑤ 산수를 통해 부처의 구원을 얻고자 했던 종병은 산수화를 통해 인연의 원인을 줄여 나가면서 정신의 세계로 나아가갈 수 있다고 했다.

28. 윗글과 <보기>를 읽고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조선 후기의 진경산수화는 실재하는 경치를 표현하는 새로운 주제의식으로 조선 후기 화단의 한 면모를 형성하였다. 천기론적 진경은 진경산수화의 초기 단계인 18세기 전반, 정선을 비롯한 낙론계 문인들이 구사한 사실적 재현 위주의 진경산수화풍을 가리키며, 사의적(思義的) 진경은 18세기 중엽 이후 형성된 남종문인 화풍을 토대로 한 진경산수화풍을 의미한다. 진자는 회화적인 표현에서 현장의 기운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강한 구도와 뾰뾰한 공간, 표현적인 필치와 강렬한 묵법을 중시했다. 반면 후자는 진경을 그릴 때 대상의 기운을 표현하려고 하기보다는 화가의 해석과 감흥인 사의성을 반영하려고 했다. 그러므로 전자가 산수 경치에 소재를 국한한데 반하여 사의적 진경은 소재 면에서 더욱 다양할 수밖에 없었다.

- ① 사의적 진경은 실재하는 경치만을 소재로 다루지는 않았을 것이다.
- ② 북송 시대 화원화풍의 화가들은 정선을 남종문인에 비해 높게 평가할 것이다.
- ③ 남종문인화풍 문예관은 대상의 기운을 표현하는 것을 높게 평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 ④ 천기론적 문예관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산수를 묘사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았을 것이다.
- ⑤ 마음의 주체적 활동성을 강조하는 사람은 사의적 진경을 천기론적 진경에 비해 우월하게 여길 것이다.

29. 다음 중 ㉠과 유사한 관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마음과 손, 그림 사이에 간격과 쉼이 없어야 한다.
- ② 그림에 구현된 하늘의 이치를 보고 자연과 합일한다.
- ③ 몸과 마음의 일체가 문인화를 그리는 기본 원리이다.
- ④ 우주 창조의 원리인 일획은 나의 마음에 간직되어 있다.
- ⑤ 나의 마음에서 일획을 바로 세워 구체적 화법의 원리로 삼는다.

30.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어떤 사물 또는 개념의 속 내용을 새겨서 느끼거나 생각함.
- ② ㉡: 사물이나 현상의 한 부분. 또는 한쪽 면.

- ③ ㉢: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이 함께 존재함
- ④ ㉣: 일정한 분량을 채워 모자람이 없게 함.
- ⑤ ㉤: 다양한 것들을 한 곳에 모음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시를 읽고 어떻게 살아가나
 서른 먹은 사내가 하나 잠을 못 잔다.
 먼 기적 소리 처마를 스쳐가고
 잠들은 아내와 어린것의 베갯말에
 밤눈이 내려 쌓이나 보다.
 무수한 ㉠손에 뺨을 얻어맞으며
 향시 곤두박질해 온 생활의 노래
 지나는 ㉡돌팔매에도 이제는 피곤하다.
 먹고 산다는 것
 너는 언제까지 나를 쫓아오느냐.
 등불을 켜고 일어나 않는다.
 담배를 피워 문다.
 쓸쓸한 것이 오장(五臟)을 씻어 내린다.
 노신이며
 이런 밤이면 그대가 생각한다.
 온 세계가 눈물에 젖어 있는 밤
 상해(上海) 호마로(胡馬路) 어느 뒷골목에서
 쓸쓸히 앉아 지키던 등불
 ㉢등불이 나에게 속삭거린다.
 여기 하나의 상심한 사람이 있다.
 여기 하나의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

- 김광균, 「노신」 -

(나)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나는 **시인이 못됨**으로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서울역 앞을 걸었다.
 저물녘 ㉠남대문 시장 안에서
 빈대떡을 먹을 때 생각나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맘 좋고 인정이
 있으므로 **즐거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고귀한 인류이고
영원한 광명이고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 김중삼,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

3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화자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 (나)는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의인화를 통해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는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나)는 대화를 인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세상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3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가난한 화자에게 고통을 주는 소재이다.
- ② ㉡ : '아내' 및 '어린 것'과 연결되어 화자에게 삶의 의지를 부여하는 소재이다.
- ③ ㉢ : '노신'과 연관된 시어로서 화자를 위로하는 소재이다.
- ④ ㉣ : 삶이 어렵더라도 명랑하고 슬기롭게 사는 이들이 삶을 영위하는 공간이다.
- ⑤ ㉣ : 긍정적 삶의 자세를 지닌 이들을 지칭하고 있으며 화자 역시 이들에 대해 애정을 지니고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김중삼의 시적 세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인간이 부재하는 순수한 아름다움의 세계를 추구하는 시, 인간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그린 휴머니즘적 세계를 추구하는 시가 바로 그것이다. 이 두 시적 세계는 1950년대 대두되었던 모더니즘 시에 대한 김중삼의 비판적 의식과 관련이 있다. 그는 모더니즘 시가 가진 관념성과 감상성에서 탈피하여 구체성을 획득하였으며, 모더니즘 시의 의미 없는 기교주의 및 수사법을 비판하였고 시의 진정한 가치를 형식보다는 내용에서 찾고자 했다. 이러한 의식이 김중삼으로 하여금 휴머니즘적 사상을 갖춘 작품들,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한 작품들을 발표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 ① 시적 화자는 '순하고 명랑한 이들'이 형식적 가치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있다고 보는군.
- ② 시적 화자는 '엄청난 고생되어도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군.
- ③ '종로', '서울역' 등의 구체적 지명을 언급한 이유는 관념성을 벗어나지 않기 위한 시인의 의지와 관련이 있군.
- ④ 시적 화자가 자신을 '시인이 못된다'라고 표현한 것은 인간이 부재하는 세계를 지향한 시인의 태도와 관련이 있군.
- ⑤ '고귀한 인류', '영원한 광명' 등의 시어를 통해 진정한 시란 다양한 표현 방식을 통해 수사학을 추구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군.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 최척은 어려서부터 뜻이 크고 기개가 넘치는 사람이었다.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정상사 집에서 글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창 틈으로 쪽지가 날아들었다. 그 쪽지는 정상사 집에 머물고 있는 과부 심씨의 딸 옥영이 보낸 것이었다. 최척은 옥영에게 답서를 써 주었고 옥영은 다시 최척에게 아내로 맞아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최척은 편지를 다 읽은 후 마음이 더욱 기뻐서 자기 아버지에게 간절하게 아뢰어 말했다.

“들으니, 과부 심씨가 서울에서 내려와 정씨 집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 딸이 결혼할 나이인데다가 용모가 매우 아름답고 성격이 온순하다고 합니다. 아버님께서 불초한 자식을 위해 시험삼아 정상사에게 구혼해 보십시오. 만약 이 일을 늦추시어 지위가 높은 사람이 우리보다 먼저 구혼하게 된다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니, 우리가 먼저 구혼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저들은 귀족으로 멀리 타향에 와서 잠시 더부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유한 집에 혼처를 구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집은 본래부터 가난하니 저들이 우리의 구혼을 기꺼워할 리가 없다.”

최척이 거듭 간청하여 말했다.
“먼저 물어 보십시오.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이에 최척의 아버지가 가서 물으니, 상사가 말했다.
“나의 표매*가 서울에서 피난을 와 궁박하게 내 집에 머물러 있는데, 그녀의 외동딸이 자식이 뛰어나고 제주와 행실이 보통이 아니라네. 그래서 내가 바야흐로 신랑감을 구해 가정을 이루게 하려고 하네. 진실로 자네의 아들이 훌륭한 사윗감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단지 자네가 가난한 것이 걱정일세. 그러나 내가 마땅히 누이와 상의를 해서 다시 알려주세.”

최척이 집으로 돌아와 이러한 말을 전하자, 최척은 초조한 모습으로 상사의 회답이 오기를 고대하였다. 상사가 심씨에게 최척이 구혼한 사실을 이야기하니, 심씨가 거절하며 말했다.

“저는 온 집안이 유리(遊離)되어 의탁할 곳 없이 외롭고도 어렵사리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을 반드시 부유한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어 의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랑이 비록 어질다고는 하나 그 집안이 매우 가난하다고들 하니,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날 밤 옥영이 어머니 곁으로 가서 말을 하려다가 머뭇거리니, 어머니가 말했다.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숨기지 말고 털어놓아라.”
옥영이 얼굴을 붉히고 말을 못하다가 억지로 입을 열어 말했다.

“어머님께서 저를 위해 사위를 고르시되 반드시 부유한 사람만을 구하려고 하시니, 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집안이 부유하고 사윗감마저 어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집안은 비록 먹을 것이 풍족하더라도 사윗감이 어질지 못하다면, 그 집안을 보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이 어질지 못한테 제가 그를 남편으로 섬긴다면, 비록 곡식이 있다고 한들 그가 능히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최생을 몰래 살펴보니, 그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우리 아저씨께 와서 성의를 다 하여 성실하게 배웠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는 결코 경박하거나 방탕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을 배필로 삼을 수만 있다면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물며 가난한 것은 선비의 본분이요, 떳떳하지 못한 재물은 뜬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청컨대 최생으로 마음을 정하시어 저

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은 처녀가 제 임으로 할 말은 아니지만, 제 일생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부끄러움을 꺼려하여 침묵을 지킨 채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마침내 용렬한 사람에게 시집가서 일생을

[A] 그르쳐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미 깨어진 시루는 다시 완전하게 하기 어려우며, 물을 들인 실은 다시 회개 할 수 없듯이 일이란 한 번 그르치면 서제막급(噬臍莫及)*입니다. 하물며 지금 제 처지는 다른 사람과 달라 집에는 엄한 아버지가 계시지 않고 왜적이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진실로 참되고 믿음직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 두 모녀로 하여금 우리 가문의 운명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지금은 차라리 안씨가 결혼을 요청하고 서매가 스스로 낭군을 선택한 것을 본받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자의 속마음을 숨긴 채 단지남의 입만 바라보면서 가까운 곳에 있는 배필을 가만히 놓아두어야 하겠습니까?”

옥영의 모친은 어쩔 수 없이 다음날 정공에게 아뢰어 말했다.

“제가 밤에 다시 생각해 보니, 최씨가 비록 가난하지만 그의 아들이 준수하며 빈부(貧富)는 하늘에 달려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에게 구혼하기보다는 차라리 최랑을 사위로 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공이 말했다.

“누이가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반드시 일이 성사되도록 권하리라. 최랑이 비록 한미한 선비이나 뉘뉘이가 옥처럼 훌륭하여 서울에서도 이 같은 사람은 거의 찾을 수 없을 게다. 저 사람이 만약 학업을 완수한다면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가 될 것이니, 어찌 숙맥(藜藿)과 같은 사람이겠는가?”

- 조위한, 「최척전」 -

* 표매 : 부모의 자매 및 모친의 형제 등과 친척 관계인 중매
 * 서제막급(噬臍莫及) : 후회해도 이미 소용이 없음을 비유한 말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최척의 아버지는 과부와 결혼하려는 최척을 만류하고 있다.
 - ② 옥영은 신분 차이로 인해 최척과의 결혼에 대해 고심하고 있었다.
 - ③ 정공은 최척이 숙맥과 같은 어린 사람이기 때문에 혼사를 쾌히 승낙하고 있다.
 - ④ 옥영의 모친은 최척과 옥영의 혼사와 관련하여 자신의 처음 생각을 바꾸고 있다.
 - ⑤ 최척이 옥영에게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는 편지를 쓴 이유는 자신이 직접 옥영의 집으로 찾아가 구혼하기 위해서이다.

35. <보기>의 화자에게 해 줄 수 있는 '옥영'의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엇그제 저멋더니 흐마 어이 다 늘거니 소년 행락(少年行樂)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업다 늘거야 서른 말슴 흐자니 목이 멘다 부생모육(父生母育) 신고(辛苦)흐야 이내 몸 길러 낼 제 공후 배필(公侯配匹)은 못 바라도 군자호구(君子好逑) 원(願)흐더니 삼생(三生)의 원업(怨業)이오 월하(月下)의 연분(緣分)으로 장안 유희(長安遊俠) 경박자(輕薄子)를 뭇굴치 만나 잇서 당시(當時)의 용심(用心)흐기 살어름 디되는 듯 삼오 이팔(三五二八) 겨오 지나 천연 여질(天然麗質) 질로 이니 이 얼굴 이 태도(態度)로 백년 기약(百年期約) 흐얏더니 영광(年光)이 훌훌하고 조물(造物)이 다시(多猜)흐야 봄바람 가을 물이 뵈오리 북 지나듯 설빈 화안(雪鬢花顏) 어디 두고 면목가증(面目可憎) 되거고나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님이 날 필요냐

- 허난설헌, 「규원가」 -

- ① 부모의 뜻을 따르는 당신의 지극한 효성에 감탄했어요.
- ② 주변 환경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뜻대로 살아보세요.
- ③ 당신의 남편이 '장안유희 경박자'를 만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 ④ 아주 어릴 때 잘못된 일들을 계속 곱씹고 자책하는 것은 사실 고통스럽죠. 현재의 처지에 만족하세요.
- 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공후배필'이었기에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었어요. 차라리 다른 사람을 찾아보세요.

36. [A]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최선이 아닌 상황에서 차선을 선택해야 함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다.
 - ③ 자신의 경험적 사례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 ④ 자신이 원하는 반대의 상황을 가정하고 예측되는 미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⑤ 청자의 지난날의 행동들을 열거하며 자신의 주장이 정당함을 드러내고 있다.

[37~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風霜(풍상)이 섰거친 날에 꾀 피은 黃菊花(황국화)를
 金盆(금분)*에 그득 담아 玉堂(옥당)에 보오니
 桃李(도리)*야, 꽃이오냐 마라 님 뜻을 알페라
 - 송순 -

(나)
 국화야 너는 어찌 三月春風(삼월 춘풍) 다 보니고
 落木寒天(낙목 한천)*에 네 홀노 피엿는다
 아마도 傲霜孤節(오상 고절)*은 너뿐인가 호노라
 - 이정보 -

(다)
 房(방) 안에 헛는 燭(촉)불 놀과 離別(이별)호엿관디,
 것츠로 눈물 디고 속타는 줄 모르느고,
 우리도 더 燭(촉)불 갖뜨여 속타는 줄 모로도다
 - 이개 -

* 금분 : 좋은 화분
 * 도리 : 복사꽃, 오얏꽃
 * 낙목한천 : 나뭇잎이 지고 추워진 계절
 * 오상고절 : 찬 서리를 이겨내는 높은 절개

37.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나)는 모두 표면화된 청차가 등장하고 있다.
 - ② (다)는 대상의 부재에서 느끼는 비탄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 ③ (가), (나)는 모두 대상의 속성을 활용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 (다)는 모두 말을 전내는 방식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 (나), (다)의 화자는 모두 시적 대상을 소통 혹은 이해 가능한 것으로서 바라보고 있다.

38. (가), (나)와 <보기>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인간(人間)을 썬나 와도 내 몸이 겨를 업다 니것도 보려 호고
 저것도 드르려코 비롭도 허려 호고 들도 마즈려코 붉으란
 언제 죽고 고기란 언제 닳고 시비(柴靡)란 뉘 다드며 딘 곳츠
 란 뉘 쓸려뇨 아즘이 낫브거니 나조히라 나을소냐 오늘리 부
 족(不足)거니 내일(來日)리라 유여(有餘)호랴 이 피히 안즈
 보고 더 피히 거러 보니 번로(煩勞)호 믱음의 번릴 일이 아조
 업다 쉼 스이 업거든 길히나 전호리야 다만 호 청려장(靑藜
 杖)이 다 뜨디여 가노미라
 - 송순, 「면양정가」 -

- ① <보기>는 (가)와 달리 명령을 통해 권유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가)는 <보기>와 달리 동일한 음보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나)는 <보기>와 마찬가지로 속세를 떠난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보기>는 (가)와 달리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강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 ⑤ (가), (나)는 <보기>와 달리 공간의 이동을 통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39. (가)~(다)의 시적 화자가 동일인이라고 가정할 때, 각 시어들을 연관시켜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님 뜻'은 '도리'와 '국화'가 지닌 숭고함과 관련이 있기에 (나)의 화자 역시 그 뜻을 받들겠군.
 - ② (가)의 '국화'는 (나)의 '풍상'을 이겨낼 수 없으므로 시적 화자가 긍정의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대상이겠군.
 - ③ (가)의 '풍상이 섰거친 날'과 (나)의 '낙목 한천'은 서로 대비되어 속세에 대한 화자의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는군.
 - ④ (가)의 '옥당'은 '국화'의 의미가 전달될 수 있는 공간이고, (다)의 '방'은 화자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공간이겠군.
 - ⑤ (가)에서 입이 보낸 '황국화'의 의미를 화자가 파악했다면, (다)의 이별 후에도 입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 같군.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렁딱지만한 동네서 자고 나면 마주 불 얼굴거리 그럴 수는 없을 일이었으나 두고두고 쌓인 감정을 가랑하면* **㉠그것**도 되레 양에 털 차는 것이었다. 언제고 한 번은 되게 홀닥아 * 주리라고 별러온 것은 비단 이장을 비롯한 몇 사람만의 심정이 아니었을 터이다. 팬티를 껌다 내걸고 전지한 지 열흘이 넘어도 아직 말뚝을 뽑거나 황의 집에 걸어도 준 이가 없으면 보아도 능히 대중할 일이던 것이다.

황이 그 전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열린 반상회에 참석만 하지 않았더라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였다. 황은 반상회에 참석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제 장삿속으로 된 소리 안 된 소리 하여, 남 한 마디 할 사이 열 마디도 넘게 왜장치며* 수선을 떨었던 것이다.

㉡그날 반상회는 안양 시흥 지역의 수재민 의원금 각출*을 위한 토의가 가장 주요한 안건이었다. 서울 물도 먹고 했으니 그만한 눈치쯤은 누구보다도 먼저 어림했을 사람이 황이었다. 그러나 황은 성수기가 되어 값이 채기* 전에 마을 공동으로 황새기것을 사야 한다느니, 김장에 쓸 소금을 모개*홍정해다 나누자느니, 하며 제 배 불릴 소리만 지껄었던 것이다. 빈말 로라도 동네 형편 생각하여 가을에 주기로 하고 값이 솟기 전에 여협에 직접 거간*을 넣어 험직하게 떼어다가 나누자는 소리 한 마디만 섞었더라도 그다지 밍살맞게 여기지는 않았을지 몰랐다. 이재민 구호품으로 집집이 쌀 두 되, 돈으로 육백 원 이상, 그리고 입던 옷가지와 간장 된장 고추장 따위를 엮어 내기로 결정을 본 뒤에도 황은 속이 흰히 들여다보이는 소리만 씨월거렸던 것이다.

황선주라면 느티올에선 버림치*로 치부하여 진작 젓혀둔 인간이었지만 이제에 밝고 돈뿐이나 만지기로는 면내에서도 엄지손가락에 꼽힌다는 작자였다.

그는 내놓고 불려가는 돈만 해도 이천만 원이 넘으리라고 했지만 억대를 웃도는 농토로 하여 지주로도 으뜸이었다. 그는 느티올 사람에게도 크든 적든 노상 오 부 이자를 놓았고, 그나마도 눈 밖에 난 사람은 아무리 목 타는 소리를 해도 뻑뻑하게 곱었다.

대개 고리대금업자가 믿음성 한 가지로 돈을 놓기로는 농사꾼만한 상대가 없을 거였다. 땅이 있음으로서이다. 그것을 가장 잘 이용할 줄 아는 이가 황이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자기를 예사 험뜯으며 술이 들어가면 으레 싫은 소리를 하던 이장이니, 새마을 지도자 최정식(崔正植), 고명근(高明根)이와 홍사철한테는 고대* 죽는다고 해도 눈 하나 까딱할 위인이 아니었다.

김도 황의 돈을 안 쓰는 사람 가운데의 하나였다. 손에 호미 자루 한번 쥐는 법 없이 식전 저녁으로 흰묵* 젓혀가며, 남 허리 부러지는 논두렁 받가리*로 거드름을 피우며 산보

다니는 게 눈썹이 시어서도, 죽으나 사나 황에겐 절대 손을 안 내밀기로 작정했던 것이다.

반상회 이튿날 아침, 어머니회 회장 창근 어매와 부녀회 회장 구충서 아내는 간장 된장 고추장 옷가지 따위를 걷으러 김이 끌어 주는 리어카를 앞세워 나가고,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와 반장은 경운기를 빌려 쌀을 걷으러 나섰는데, TV를 통해 수재민들의 딱한 꼴을 여러 날 본 데다가 반상회의 결의도 있고 하여, 어느 집을 가도 군소리 한마디 섞지 않고 웃는 낯으로 반겨 주었다. 하지만 리어카를 달고 나섰던 아낙네들은 황선주네 집에 이르러 한바탕 실랑이를 벌이지 않을 수 없었다. 김이 리어카를 끌고 그 집 발마당에 들어서는데 황은 안마루에서 자두를 한 소쿠리 따다 놓고 한창 술 담을 채비로 바쁜 중이었다. 김은 내외를 하자는 게 아니라 반찬 추렴*은 아낙네들 소관이므로 뉘 집에 가도 울안 출입을 삼가고 있었다.

충서 안과 창근 어매가 울안으로 들어간 사이 김은 마당 귀퉁이 대추나무 그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런데 들어갔으면 열린 간장이나 한 양푼하고 입던 옷가지를 얻어 나와야 할 사람들이 담배 한 대를 다 털도록 썩 구워 먹은 소식이었다. 김은 물꼬를 봐야 하고 손대어야 할 그루밭*도 한 두 군데 아닌데 웬 능장인가 싶어 속이 상했다.

참다못해 김이
“아마 채근 언니, 메주를 쑤유 장을 대리유? 왜 그리 꿈지럭 그리슈?” 하고 소리를 버럭 지르니
“아니 수재민들은 뻥쓰두 안 입는단 말유?” 하는 황의 거친 목소리가 불쑥 튀어나왔다.

(중략)

“춘자 아버지두, 우리가 시방 춘자 아버지 입던 뻥스를 응으러 왔단 말유? 희치희치*허구 낚음낚음현 혼 뻥스르…… 뻥스장수가 보면 불쌍해서 하나 그저 주게 생긴 걸레를 예가장 펄렁그리구 왔대유? 세상에 원……”

미루어 보건대 이재민 구호 물품이랍시고 황이 입던 팬티를 내놓은 모양이었다. 김은 구경만 하고 있잠도 아니요, 그렇다고 남의 집 안에 들어가 사내 여편네가 남남끼리 하필 팬티를 놓고 가가거겨 하는 옆에서 옆들이하잠도 아닌 듯하여 부쩍지 못하고 있었다. 황이 말했다.

“채근 언니는 …… 말을 귀루 안 듣구 입으루 들유? 수재민이라구 훗것*만 입으라는 뻐이 워다 있슈.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끄니래두 풀이라구 추렴해 준 양석 팔어 뻥스버텨 사 입으야 쓰것수? 게, 다 나두 생각이 있어 내는 겐디 땡세* 나를 트집힐류? 말에 도장 다구 함부루 입방아 찧지 마유. 이게 왜 흔게유. 남대문포는 삼 년을 입어두 새물내 만납디다유. 공중* 뉘 우세스럽게끔 *이유 삼지 말고 얼릉 만디나 가보유.”
“……”

두 여자는 입이 모자라 말뭇을 못 대는지 잠잠했으나, 그냥 두면 나중엔 별 못할 소리가 없을 것 같았다./ 김이 말했다.

“아따나…… 채근 언니두 예지간허슈. 애초 **㉠저기현** 사람허구 **㉡저기했**야 말이지…… 야중예* 다 **㉢저기허는 수** 있으니까 그냥 주는 대루 받아 나오슈. 이러다가는 일 품매구 해넘이 허겔슈.”

그 말을 계제* 삼아 창근 어매가 말했다.
“남대문이구 앞대문이구 간에 수재민 고쟁이 걱정하는 사람은 팔도강산에 느티을 춘자 아버지뿐일 쑤. 확실히 우리계는 꽃동네새동네여.”

* 가랑하다: 어떤 일에 대하여 확실한 계산은 아니나 얼마쯤이나 정도가 되리라고 짐작하다.

* 훌딱다: 휘몰아서 대강 훑쳐 닦다. 여기서서는‘휘몰아 나무라다.’의 미.

- * 왜장치다: 쓸데없이 큰 소리로 마구 떠들다.
- * 각출(釀出): 같은 목적을 위하여 여러 사람이 돈을 나누어 냄.
- * 채다: 물건 값이 오르다.
- * 모개: 죄다 한데 묶은 수효.
- * 거간: 사고파는 사람 사이에 들어 흥정을 붙임. 또는 그러한 사람.
- * 버림치: 못 쓰게 되어서 버려 둔 물건.
- * 고대: 이제 막, 바로 곧.
- * 흰목: 희범게 으스대며 잔뜩 빼어 휘두르는 목.
- * 말가리: ‘말둑’의 잘못.
- * 추렴: 모임이나 놀이 또는 잔치 따위의 비용으로 여럿이 각각 얼마씩의 돈을 내어 거둬.
- * 그루밭: 밀이나 보리를 베어 내고 다른 작물을 심은 밭.
- * 희치희치: 괴롭거나 종이 따위가 군데군데 치이거나 미어진 모양.
- * 훗것: 겹옷이 아닌 옷, 얇은 옷.
- * 땡세: ‘도리어, 오히려’의 사투리.
- * 공중: ‘공연히’의 잘못.
- * 우세스럽게시리: 몹시 부끄럽거나 부끄러운 데가 있게 시리.
- * 야중예: ‘나중에’의 잘못.
- * 계제: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된 형편이나 기회.

- 이문구, 「우리 동네 황씨」 -

40.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방언과 구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
- ② 과거와 현재를 반복 교차하여 사건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③ 공간적 배경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상황을 입체적으로 드러낸다.
- ④ 인물들의 유사한 특성을 제시하여 서술자의 시각을 드러낸다.
- ⑤ 현학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형상화한다.

41.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지시어는 온갖 사태를 지시한다. 그것은 무생물 혹은 사람일 수도 있으며, 시간과 장소일 수도 있다. 나아가 어떤 행동일 수도 있다. 이러한 지시어는 대상과의 거리 관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 ① ㉠는 황씨의 팬티를 내다 건 행동을 지시하는 것으로 황씨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드러내는 소재야.
- ② ㉡은 사건의 발단이 되며 갈등이 심화되는 시간을 의미해.
- ③ ㉢는 남이야 어떤 곤경에 처해 있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황씨의 행동을 지시하고 있으며 대상에 대한 비판적 태도 역시 담겨 있어.
- ④ ㉣는 창근 어미의 행동을 지시하며 이를 통해 창근 어미와 발화자 사이의 갈등이 드러내고 있어.
- ⑤ 사건의 전개 과정 상, ㉤에서 지칭하는 대응 방식은 ㉡와 같은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어.

42. <보기>를 바탕으로 이 소설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우리 동네 황씨는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빚어진 농촌의 소외문제와 생존기반을 상실한 농촌의 현실을 그리고 있다. 농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악덕 고리채를 등장시킴으로써 온갖 수탈로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농촌의 실상을 사실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고리채업자와 농민 간의 갈등을 보여줌으로써 전통적 질서를 상실해가는 농촌의 현실을 부각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잃어가는 공동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의지 또한 나타난다.

- ① 고리대금업자인 황을 등장시켜 힘겨운 농촌의 실상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군.
- ② 황에게 돈을 빌리지 못하는 김의 처지를 통하여 농촌의 소외 문제를 부각하고 있군.
- ③ 수재민 의연금을 모으려는 농민들의 행위는 공동체성을 회복하려는 의지와 관련이 있군.
- ④ 황이 부를 축적하는 과정은 산업화 과정에서 생존기반을 상실해가는 농민의 현실과 관련되었군.
- ⑤ 창근 어매와 황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전통적 질서를 상실해가는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군.

43. 윗글에서 가장 나중에 일어난 사건을 고르면?

- ① 황 씨의 팬티를 내다 걸음
- ② 마을 반사회에서 이재민 구호품을 정함
- ③ 새마을 지도자와 반장이 리어카를 빌림
- ④ 김이 대추나무 그늘에서 담배를 피움
- ⑤ 황 씨와 창근 어매가 말다툼을 함

[44~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행여 일출을 보지 못할까 노심초사하여 새도록 자기 못하고 가끔 영재*를 불러 사공더러 물으라 하니, 내일은 일출을 쾌히 보시리라 한다 하되, 마음에 미덥지 아니하여 초조하더니, 먼 데 닭이 울며 연하여 잤으니, 기생과 비복을 마구 흔들여 어서 일어나라 하니, 밖에 급창(及唱)이 와, 관청 감관이 다 아직 너무 이르니 떠나지 못하시리라 한다 하되, 끈이 아니 들고 말발이 재촉하여 떡국을 쑤었으되 아니 먹고 바빠 귀경대*에 오르니, 달빛이 사면에 조요하니* 바다가 어젯밤보다 희기 더하고 광풍이 대작하여 사람의 뼈에 사무치고 물결 치는 소리 산악이 움직이며 별빛이 말뚱말뚱하여 동편에 차례로 있어 새기는 떨었고, 자는 아이를 급히 깨워 왔기 추위 날치며, 기생과 비복이 다 이를 두드려 댈니, 사군이 소리하여 혼동하여 가로되,

“상(常)없이* 일찍이 와 아이와 실내(室內)* 다 큰 병이 나게 하였다.”

하고 소리하여 걱정하니, 내 마음이 불안하여 한 소리를 하지 못하고, 감히 추위하는 눈치를 하지 못하고 죽는 듯이 앉았으되, 날이 썰 가망이 없으니 연하여 영재를 불러, 동이 뜨느냐 물으니, 아직 멀기로 연하여 대답하고, 물 치는 소리 천지 진동하여 한풍(寒風) 끼치기 더욱 심하고, 좌우 시인(侍人)이 고개를 기울여 입을 가슴에 막고 추워하더니, 매우 시간이 지

난 후 동편의 성수(星宿)가 드물어 월색이 차차 엷어지며 홍색이 분명하니, 소리하여 시원함을 부르고 가마 밖에 나서니, 좌우 비복과 기생들이 웅위하여 보기를 졸이더니, 이윽고 날이 밝으며 붉은 기운이 동편 길게 뻗었으니, 진홍대단(眞紅大緞)* 여러 필을 물 위에 펼친 듯, 만경창과가 일시에 붉어 하늘에 자욱하고 노하는 물결 소리 더욱 장하며, 홍전(紅氈)* 같은 물빛이 황홀하여 수색이 조요하니, 차마 끄적하더라.

붉은빛이 더욱 붉으니, 마주 선 사람의 낮과 옷이 다 붉더라. 물이 굽이쳐 울려 치니, 밤에 물 치는 굽이는 옥같이 희더니, 지금 물굽이는 붉기 홍옥(紅玉) 같아서 하늘에 닿았으니, 장관을 이룰 것이 없더라.

붉은 기운이 퍼져 하늘과 물이 다 조요하되 해 아니 나니, 기생들이 손을 두드려 소리하여 애달과 가로되,

“이제는 해 다 돌아 저 속에 들었으니, 저 붉은 기운이 다 푸르러 구름이 되리라.”

혼공하니,

낙막(落莫)하여* 그저 돌아가려 하니, 사군과 숙씨*가,

“그렇지 않아, 이제 보리라.”

하시되, 이랑이·차석이 냉소하여 이르되,

“소인 등이 이번뿐 아니라 자주 보았사오니, 어찌 모르리이까? 마누라님 큰 병환 나실 것이니, 어서 가압사이다.”

하거늘, 가마 속에 들어앉으니, 봉의 어미 악씨 가로되,

“하인들이 다 말하되, 이제 해 나오리라 하는데, 어찌 가시려 하시오, 기생 아이들은 철모르고 지레 이렇게 구는 것이외다.”

이랑이 박장하여 가로되,

“그것들은 전혀 모르고 한 말이니, 끈이듣지 말라.” 하거늘,

“돌아가서 사공더러 물으라.”

하니 사공이,

오늘 일출이 유명하리란다 하거늘, 내 도로 나와 서니, 차섭이·보배는 내 가마에 드는 상(相) 보고 먼저 가고 계집종 셋이 먼저 갔더라.

홍색이 거룩하여 붉은 기운이 하늘을 뻗늘더니, 이랑이 소리를 높이 하여 나를 불러, 저기 물 밑을 보라 외치거늘 급히 눈을 들어 보니, 물 밑 홍운(紅雲)을 헤치고 큰 실오라기 같은 줄이 붉기 더욱 기이하며, 기운이 진홍 같은 것이 차차 나 손바닥 너비 같은 것이 그믐밤에 보는 숯불빛 같더라. 차차 나오더니, 그 위로 작은 회오리바람 같은 것이 붉기가 호박(琥珀) 구슬 같고, 맑고 통랑(通郎)하기는 호박보다 더 굵더라.

그 붉은 위로 훌훌 움직여 도는데, 처음 났던 붉은 기운이 백지 반 장 너비만큼 반듯이 비치며, 밤 같던 기운이 해 되어 차차 커 가며, 큰 쟁반만 하여 불긋불긋 번듯번듯 뒹놀며, 적색이 온 바다에 끼치며, 먼저 붉은 기운이 차차 가시며, 해 흔들며 뒹놀기 더욱 자주 하며 항아리 같고 독 같은 것이 좌우로 뒹놀며, 황홀히 번득여 양목(兩目)이 어질하며, 붉은 기운이 명랑하여 첫 홍색을 헤치고 천중(天中)에 쟁반 같은 것이 수레바퀴 같아서 물속으로부터 치밀어 받치듯이 올라붙으며, 항독 같은 기운이 스러지고, 처음 붉어 걸을 비추던 것은 모여 소의 혀처럼 드리워 물속에 풍덩 빠지는 듯싶더라. 일색(日色)이 조요하며 물결의 붉은 기운이 차차 가시며 일광이 청량하니, 만고천하에 그런 장관은 견줄 데 없을 듯하더라.

짐작에, 처음 백지 반 장만큼 붉은 기운은 그 속에서 해 장차 내려 하고 물이 우러나서 그리 붉고, 그 회오리바람 같은 것은 짐짓 일색을 뺏아 내니 우린 기운이 차차 가시며, 독 같고

항아리 같은 것은 일색이 모질게 고운 고로, 보는 사람의 안력(眼力)이 황홀하여 도무지 헛기운인 듯싶더라.

차섭이 · 보배는 내 교중*에 드니, 먼저 가는 듯싶더니 도로 왔던 양하여, 묘시(卯時)* 보심을 하례하고, 이랑이 손을 두드려, '보시도다' 하여 즐거하더라. 장관을 쫓더이* 하고 오려 할새, 촌너들이 작별운집(作別雲集)하여 와서 보며, 손을 비비어 무엇 달라 하니, 돈냥인지 주어 나누어 먹으라 하다.

하처로 돌아오니, 쫓던기* 중보(重寶)를 얻은 듯하더라.

- 의유당, 「동명일기(東溟日記)」 -

- * 영재 : 글쓴이의 시중을 드는 사람의 이름.
- * 귀경대 : 함경남도 함흥에 있는 대(臺)의 이름.
- * 조요하니 : 밝게 비쳐서 빛나니.
- * 상없이 : 분별없이.
- * 실내 : 남의 아내를 일컫는 말. 여기서는 글쓴이를 가리킴.
- * 진홍대단 : 짙붉은 비단.
- * 홍건 : 붉은색의 모직물.
- * 낙막하여 : 마음이 쓸쓸하여.
- * 숙씨 : 시아주버님.
- * 교중 : 가마 안에.
- * 묘시 : 오전 다섯 시에서 일곱 시까지.
- * 쫓더이 : 실컷.
- * 쫓던기 : 즐겁기가.

44.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을 표현하고 있다.
- ②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 ③ 인물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필자의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비유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비교를 사용하여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4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해가 뜨기 전 굉장히 추운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 ② 일출을 본 후 느끼는 글쓴이의 만족감이 드러나고 있다.
- ③ 사군은 일출이 시작됨을 봉의 어미에게 미리 언급하고 있다.
- ④ 사군은 추위로 인해 큰 병이 날까봐 자신의 아내를 걱정하고 있다.
- ⑤ 일출이 이미 끝났다는 견해와 일출이 이제 시작이라는 견해가 공존하였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